

## 고코쿠지 절 덴구도

고코쿠지 절의 덴구도에는 대화재 후에 하룻밤 사이에 절을 재건했다고 믿는 전설의 덴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덴구는 오래된 민화와 문예에 등장하는 붉은 얼굴과 큰 코가 특징인 요괴로 새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강한 덴구는 깃털로 된 마법 부채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제단 뒤에 장식된 거대한 덴구 가면이 가장 중요한 볼거리입니다. 높이 2.4m, 폭 2.7m로 교토의 인형사 2명이 조각한 것입니다. 금색 눈과 커다란 검은 눈동자는 용맹하고, 붉은 얼굴과 길게 튀어나온 코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덴구의 시선은 제단 앞에 발을 들여놓은 참배자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색을 칠한 커다란 목제 부채가 가면과 나란히 제단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절에 덴구가 모셔져 있는 이유는 이 지역 전승에 남아있습니다. 화재로 사찰이 전소된 후 떠돌이 승려가 가까운 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의 승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새벽까지 절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사찰을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찰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떠돌이 승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위업은 전능한 덴구가 한 일로, 덴구가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전설은 고코쿠지 절의 덴구도와 매년 1월에 개최되는 덴구 축제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축제는 1월 두 번째 월요일에 개최되며, 덴구로 분장한 참가자들의 행렬과 참배 춤 등의 의식이 행해집니다.